

##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성경말씀: 벰전3:1-4

벰전3:1-7 가정과 결혼 시리즈 “남편과 아내의 행동 지침”

3:1-4 설명, 교회의 팽창, 옷차림 규제 설명 필요,

목사의 책무: 하나님의 모든 계획(행20:19-20, 26-27),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아이들, 청년들

### 옷차림 규제가 있는가?

대부분 교회는 무엇을 입든, 무엇을 하든 교회만 오면 된다는 논리를 편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널리 알려야 하는 존재(벰전2:9)

이런 면에서 성도의 겉모습도 대단히 중요하다. 내면만 바르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큰 오류이다.

기도, 찬양, 예배, 설교 등 모든 영적 생활은 내적/외적 요소들의 결합체이다.

공예배에서는 옷차림, 자세, 동작 하나 하나가 대단히 중요하다.

1. 모든 창조물 가운데 사람만 옷을 챙겨 입는다.
2. 성경은 옷으로 시작해서 옷을 끝을 맺는다(가죽옷, 아마포, 고후5:1-4).
3. 옷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수단이기도 하고 무언가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다.
4. 옷은 대화의 수단이다: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 무엇하는 사람, 출신인지 드러난다.
5. 책은 겉장으로 판단하지 못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옷으로 판단한다. 삼16:6-7, 고전14:23
6. 옷에는 위력이 있다: 경찰관, 인터뷰 복장, 군인 제복
7. 옷은 분위기에 따라 달라진다. 예배, 영화관, 직장, 운동, 그러므로 옷은 대단히 중요하다(의식주).

### 하나님의 백성과 예배 그리고 옷차림

성경은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책이다. 이 백성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노아 당시 8명,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히브리서 11장의 위인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사람들 교회(에클레시아)의 의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마16:18)

세상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려야 한다(롬12:2)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그분께 경배한다.

예배는 가장 존귀한 대상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며 가장 존귀하게 섬기는 것, 공예배, 사예배 모두 특히 공예배에서 우리는 주님을 공경하는 태도와 목소리를 가지고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위험, 은혜, 긍휼, 사랑, 아름다움, 거룩함을 드러낸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찌들었다가도 공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의 영이 활기를 얻는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면 안 된다.

###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1.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시29:1-2). 거룩함이 빠지면 예배 의미가 퇴색됨.
  - a. 자세, 동작, 옷차림, 말, 노래, 기도, 말씀 낭독, 설교, 광고까지도 거룩해야 한다.
  - b. 거룩함은 곧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다.
2.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온다. 말라기의 백성과 제사장들, 하나님의 기대를 무시함(말1:6-7; 12-13)
3. 희생의 정신(막12:41-44), 과부의 이 렵돈, 힘들고 불편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 신약시대의 예배

1. 과거에는 희생물을 바쳤으나 지금은 예배자가 희생물이다.
2. 입술의 찬양의 희생물을 드린다(히13:15). 영과 진리로(요4:23-24), 이것을 오용하면 안 된다.
3. 신약 시대는 성도 자체가 희생물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제사장이다. 더 엄중한 책무
4. 초대 교회 성도들의 기대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어떤가?
  - a. 토요일에 일찍 자고 현금도 새 돈을 준비하는 등
5.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이 받으시는 희생물이 되어야 한다(빌4:18).
6.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히12:28-29).

## 예배 복장

결혼식장에 추리닝, 운동화, 슬리퍼 신고 갈 수 없다. 최상의 옷을 입고 가야 한다. 그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예배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여성들은 복장에 신경을 써야 한다.

성경은 남성의 복장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 하지 않지만 여성의 복장은 여러 차례 이야기한다(벧전3:3-4; 딤후2:9-10). 왜 그런가?

남자는 보는 것에 약하고 여자는 듣는 것에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보는 것으로 인한 실족거리를 주지 못하게 하셨다(나체 사진 등, 마18:7).

이런 구절을 오용해서 여자는 화장하거나 장식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어불성설이다. 예수님도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꾸면 주신다(히고 고운 아마포 옷, 계19:8, 엡5:27; 시45:13-14).

여기의 요점은 단정하게 차려 입는 것 이상으로 외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단정함, 정숙함, 얌전함(shamefacedness)이다.

이 말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신부이므로

남자의 경우 정장이면 다 해결된다. 그러면 어떤 옷이 여성에게 단정하고 정숙하고 얌전한 옷인가?

많은 근본주의 성경 신자들의 답: 신22:5,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 치마가 아니면 가증함 No!

이 구절은 문맥에서 봐야 한다. 10, 11과 12절을 보면 혼방은 안 되고 또 옷에 술을 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가지고 치마를 입지 않으면 가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이다.

최초의 옷 사건: 처음에 아담과 이브는 벌거벗고 지냈다(창2:25). 죄를 지은 후 곧바로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고 앞치마를 만들어 입었다(창3:7-11). 이 앞치마는 벌거벗음을 가려주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쫓으면서 가죽 옷을 입혀 주셨다(가죽 코트).

핵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벌거벗음을 가려야 한다. 막5:1-15(특히 15절, 바른 정신, 옷)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 친족들과 성적 접촉을 하면 안 된다(레18:6 이후). 벌거벗음을 드러내므로 특히 여자는 벌거벗음을 자기 남편에게만 드러내야 한다.

어느 정도가 벌거벗음의 기준인가? 아담과 이브의 가죽옷 길이가 어느 정도였을까?

출28:42의 제사장 규정

사47:1-3, 여인의 수치를 드러내기 위해 치마를 걷어 올리는 모습, 넓적다리까지 올리면 벌거벗은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는 여자의 넓적다리가 보이는 옷은 벌거벗은 것으로 간주된다.

자매들은 무릎 이하로 내려가는 옷을 입는 것이 합당하다. 미니스커트 No(마5:28의 음욕)

대화 시 남자에게 욕망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 땅에까지 닿는 치마 불필요.

그러면 꼭 치마여야 하는가?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사용하여 판단하게 하신다.

고전11: 남자와 여자의 머리 문제, 여자는 길게, 남자는 짧게, 본성도 남자의 긴 머리는 아니라고 한다

(14). 여자의 긴 머리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이면 된다.

남자와 여자의 옷도 본성적으로 알 수 있다: 전 세계 모든 화장실, 말은 달라도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로 표기가 되어 있다. 본성을 고려할 때 여자는 치마를 입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 꼭 치마를 입어야만 하는가? 성경의 답은 “아니다.”이다. 바지를 입어도 된다. 다만 단정하게 얌전하게 입어야 한다. 여기서 얌전함은 여성의 신체 형태를 드러내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음욕).

그러므로 여자의 몸의 형태를 드러내지 않는 수준의 적당한 바지는 허용이 된다.

단정하다는 것은 적절하다는 것이다: 운동, 등산, 카누 등을 할 때는 여자도 운동 바지를 입어야 한다.

치마면 다 되는가? 아니다. 몸을 조이는 치마는 바지보다 못하다.

남자는 양복을 입고 여자는 치마를 입으면 영적인 사람인가? 외적 모습은 영성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다만 내적으로 영이 단정한 사람은 외적으로도 그것이 표출된다(눅6:45).

## 결론

우리 교회의 옷차림 기준: 공예배에서 남자는 정장, 칼라 있는 셔츠, 여자는 무릎 이하의 치마나 바지,

다만 예배 때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정장, 치마(주의 만찬, 찬양, 기도, 말씀 낭독, 안내 등).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거리를 주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